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결사반대'

원주민·토지주 개발사업 전면 취소 요구

내일까지 '새 체계 3단계로 격상·추가 유예'

지난 6월 29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1,600여명의 토지주 및 원주민은 공익사업을 근거한 강제수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광주도시공사 사옥 앞에서 개발사업 전면 취소를 외쳤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원회들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조성사업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첨단3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보상방안에 대해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일관해 수용민간의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이간질 하며 오로지 사업 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사업을 기반으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용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광역시청을 강력 규탄하며 생활의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원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줄길 바라면서 수용민들이 2020년부터 8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쟁하며 관철시킨 이주대책 기준일(2020년 6월 25일)에 대해 광주도시공사가 수용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에서 2015년에 책정된 1조 217억 원의 총사업비는 요지부동의 금액으로 물가 상승과 실거래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 6년 전의 총사업

비를 고수 하고 있으며 수용민들은 거듭해 총사업비 및 보상비 발표 시기와 착공 시기를 고려하며 물가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미 진행해야 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토지보상법을 기초하여 원론적인 주장만을 펼치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절차 중 수용민의 정당한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련해 첨단 3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주 과반(1/2), 토지면적 과반(1/2)의 동의를 얻어 광주도시공사에 정식으로 접수를 끝냈지만 과반도 채우지 않고 접수한 다른 대책위를 핑계 삼으며 법과 원칙에도 없고 타 개발지구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1,600명의 첨단3지구 토지주와 원주민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고 1990년 현재의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보상은 현 시가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지구내 생활의 기반을 둔 실거주 원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생활 대책이 수립 되지 않는 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관계자는 첨단3지구 토지주 및 원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 진원면 일원 361만 6,853㎡를 광주·전남 주요 연



구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의 32.67%(118만2,000㎡)는 연구, 산업용지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국립심뇌혈관센터가

들어서고 17.3%(62만6,000㎡)는 주거와 상업용지로 공급되며 나머지 50.015%(180만8,000㎡)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지로 조성한다.

박선미기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5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30세 미만 군 장병 대상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에 이어 2차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진해기지사령부 화생방지원대 장병들이 접종 배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고교생, 교내 괴롭힘 의혹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 광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19분께 광주 광

산구 어등산 인근 야산에서 지역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군은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아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숨진 A군의 휴대전화에는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동영상 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단순 극단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동취재본부

GS칼텍스 MFC공장 소음 진동 화염 시험가동중지

여수산단의 GS칼텍스 MFC공장이 26일 밤에 시험가동 중 잦은 소음을 냈다. 이유는 과도한 소음진동, 화염으로 2-3회의 트러블 발생원인 으로 알려졌다.

30일에 GS칼텍스는 지난 MFC공장 플레어스택시험가동중에 소음진동, 화염으로 묘도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어 원만한 해결후 재가동 예정 되어 있는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강력 요구 사항으로 휴일 피해서 재가동 요구와 최근 3주간 지속적으로 소음진동, 화염으로 주민 피로감 극대화되 신실

기계시험가동의 안정화까지 미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주변마을 방문을 통해 가동 여부를 사전 안내할 것과 주민불편 및 피해신고 사업장 콜센터 개설 그리고 시운전기간 연장으로 플레어스택의 과도한 소음진동, 화염 등 발생저감 대책 마련, TV자막방송을 통해 시민 사전안내 등 꼼꼼한 안전수칙을 지시 했다.

사건발생 일주일 여수 산단LG공장에서 동일한 시험 가동 중에 소음진동, 화염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었다.

묘도주민들 입장은 새로운 시설시험가동을 미리 알려 주었으면 조금 덜 불안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연이어 두 곳의 공장이 시험가동으로 주민불안이 커진 상태이다.

GS칼텍스시험가동중에 방문한 여수시 관계직자는 "공장에 진동과 소음도 크게 느껴지만 굴뚝의 화염이 40~50m를 솟구치는 소음은 굉장했다고 전하면서 저런 소음과 화염을 앞으로 주변주민들이 듣고 보고 사는 게 걱정이란" 입장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여수해경, 주말 장맛비에 잇따른 응급환자 이송

어지럼증 호소 90대 금오도 주민 및 선상 환자 119로 인계

여수 해양경찰서는 주말 장맛비가 오는 가운데 도서 지역 및 선상 응급환자를 경비함정으로 긴급이송했다고 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자택에서 A(62) 씨가 일을 하다 넘어져 이마 부분이 찢어지고 출혈이 심하다는 신고가 119를 경유해 상황실로 접수됐다. 다음날 4일 오전 8시 41분께에도 여

수시 남면 금오도 자택에서 B(96)씨가 뇌혈관질환 등으로 구토 및 어지럼증 호소 신고접수 됐다.

여수해경은 두 환자 모두 돌산파출소 구조정을 출동 시켜 금오도 여천항에서 환자와 보호자 탑승 후 돌산군 내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4일 오후 5시 22분께 여수시 묘도 동쪽 2.4km 해상 투묘지에서 인선

선적 3000t급 부산 C호 선원 D(68) 씨가 안면부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여수항 VTS를 경유해 상황실로 접수됐다.

해경은 광양파출소 구조정을 출동시켜 D 씨를 육상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해경은 3명의 응급환자가 장맛비로 기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위험에 처했으며, 신속한 출동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